

고품질 쌀 생산 청신호 커다

남원시, 농축산부 공모사업 선정 5억2000만원 확보 사업 다각화로 농업경쟁력 확보·신소득 창출 기대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도 고품질쌀 적정생산 사업다각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5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품질쌀 적정생산 사업다각화 사업은 그동안 쌀 증산위주의 정책에서 과채류와 잡곡류 등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평야부, 중산간부, 산간 고랭지의 다양한 지대가 분포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고품질쌀에서부터 다양한 과채류와 잡곡류 등이 생

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영농 1번지'이다.

시에서는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하여 쌀 이외의 타작물과 이모작 생산, 농촌관광 등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벤치마킹과 수심차례 현장 토론회를 통해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8~9월 서면평가와 10월 26일 발표평가를 통해 남원에서 최초로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추진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2년間に 걸쳐 추진되며, 2018년도 5억원, 2019년도 5억원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콩·맥류 등

잡곡류 생산·가공·유통 기반확대 구축과 교육·컨설팅 및 체험장 설치 등으로 고품질쌀 적정생산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신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시는 증산위주의 쌀 생산이 아닌 식생활 소비패턴의 다변화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다각화 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 남원시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고품질쌀 적정생산 사업다각화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을 비롯해 콩·잡곡류 등 다양한 명품 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확대 등 농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의료원이 7일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원장 등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어르신 건강증진 앞장

노인요양시설·복지센터 원장 등 관계자 초청 간담회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7일 오전 11시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원장 등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센터와 의료원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개선과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적절한 환자 관리요령을 습득하는 상호 우호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대하고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인데... 보급률 30% 불과

남원소방서, 대형마트 등 랩핑광고 부착 홍보 만전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가 관내 한 대형마트 승강기 전면에 부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랩핑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남원 순창 관내 보급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랩핑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활동 강화와 자율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알리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언론, 전광판 및 모니터,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친밀감 있고 광범위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광한루원 춘향관서 이달말까지 시화전 개최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31일까지 광한루원 춘향관내 '시, 광한루원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문인협회 남원지부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남원의 아름다움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화전으로 남원의 대표 아름다움인 광한루원에서 선보이게 되어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화작품으로는 '오작교 사랑'과 '요천다슬기탕' 사랑의 남원 등 2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사진전과 공예품 전시도 추진해 광한루원에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 만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한루원내 춘향관은 전시관과 영상관을 희망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춘향문화 전시자료실과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건조비 14만5864포대 예정

순창군이 7일 풍산면 대가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산 공공비축미 곡과 시장격리미곡 건조비 매입에 본격 돌입해 농민들이 분주해 지고 있다.

군은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고 28개소에서 44회에 걸쳐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예상량은 당초 매입 예상량 8만2,662포대(산들벼 2만5,353포대, 건조벼 5만7,309포대)에서 시장격리미 8만8,555포대가 증가한 총 14만5,864포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2017년 매입품종은 새누리, 신동진 2품종이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확정된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2월 8일까지 희망자 신청접수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월 8일까지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농민들의 농작물 증가 및 천적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1,000㎡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2018년도부터 사업자 선정 시 농가단위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신청필지 단위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중이나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와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로 신고 관리된 농지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대상농가가 사업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사무소와 친환경농업 관련기관에서는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초겨울 순창에 울려 퍼지는 '독서 낭독'

내달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작가와 함께 하는 낭독회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도 하는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가 진행돼 군민들이 생생한 인문학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7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문화강좌실에서 낭독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국 1,000여개 공공도서관이 공모한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상주작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하며 각 37개의 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청소년의 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학 분야 작가들에게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순창군립도서관은 문화 큐레이터로 활동할 상주작가를 순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면접을 통해 이서영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이서영 작가는 '세잔, 장자를 만나다', '사랑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음악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도 하는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가 진행되고 있다.

행', '마음밖' 등 4권의 인문학 저서를 발행하였으며 LH공사 최고경영자과정 인문 강의를 비롯하여 공무원교육원과 대학교, 도서관,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인문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작가다.

'책 세상을 열다' 첫 번째 강좌는 최근 2월 정치학박사이며 한중문화 교류회장이 강원구박사를 초빙해 '재미있는 중국인의 삶과 풍습'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했다. 이서영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의는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인문학적 즐거움을 나누는 알찬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군립도서관은 오는 9일에는 '풀잎

의 제국'이라는 소설로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 1억 6천원에 당선된 김재석 작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순창군 팔덕면으로 귀촌한 지식인으로 제1회 해양문학상 동화 부문 당선, 2008년 한국안테나 동아 동문학상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방송영상, 영화와 겸임교수로 강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형 도서관 운영 팀장은 "작가와 직접 만나 책을 통해 소로 소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관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